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WinWin 안전경영

—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 —

차창밖 풍경이 참 상이하다.
푸르름이 가득한 한가로이 흔들리는 초록빛 들녘과 그와는 대조적으로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

고장난 자전거의 부속품을 하나하나 꺼내 수리하는 기름때 묻은 수리공의 손이 정겹다. 저 자전거를 타고 쌀 배달도 할 것이고, 읍내 나가시는 어머니도 태워드리겠지? 수리공의 작은 손길이 자전거 주인에게는 큰 힘이 되듯, 우리네 현장에도 안전의 손길을 뻗어 그 손길이 닿는 곳에서 무재해의 꽃과 무사고의 열매를 맺는 곳이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김영철 부사장)이다.

안전보건경영대회 대상을 수상한 안전 으뜸기업

철강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동국제강의 주력 생산기지인 동국제강(주)



포항제강소는 연간 379만톤에 달하는 후판, H형강, 일반 형강을 비롯한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최첨단 철강생산기지이다.

인간존중과 무재해 실현으로 최고 기업 가치창조를 목표로 매진하는 포항제강소는 지난 6월 30일 서울 COEX에서 열린 모기업 협력업체 파트너십 “안전보건경영 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안전 으뜸기업이다.

대상을 수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안전활동이 뒷받침되었지만 포항제강소에서는 동국제강의 On-Line System을 한목소리로 손꼽는다.

안전보건시스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On-Line System은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비롯해 사고사례, 안전관련 양식 등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담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결재 및 열람을 가능토록 한 살아있는 시스템이다. 모든 업무가 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 실생활에 녹아 활용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포항제강소

이곳 포항제강소는 22개 업체에서 10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에 협력업체 파트너십에 더욱 신경을 쓰는데, 안전점검이나 평가, 캠페인 등은 두말할 나위 없고, 특히 교육부분에서 자사와 협력업체 직원 모두에게 심혈을 기울인다. 물론 교육에 드는 비용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그 비용은 인재양

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결국에는 회사에 이익으로 남는다. 이외에도 포항제강소는 안전홍보활동, 안전보건회보 발간, 카메라 고발제도 등 20여가지의 Event를 두어, 1업체 1Event 활동을 펼친다. 프로그램 계획에서부터 시작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운동은 작업장의 안전과 직원들의 자율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라인 속에 또 다른 스태프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보니 안전 스태프에서 전직원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안전스태프외에 각 라인마다 안전장과 안전담당자를 두어 안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현장에서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전달받아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직무별 특성화된 전문 교육으로 전 사원 모두가 안전요원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힌다.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DK

지난 4월 22일에는 직원들의 기증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나섰다. 5월 17일에는 80여명의 단원을 시작으로 「DK 봉사단」 창단식을 가졌다. 처음 봉사단을 모집할 때 너무 많은 직원들이 지원하여 창단 멤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정도라는 포항제강소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나눔이들로 가득하다.

평소 전화를 받을 때도 ‘안전! ○○팀 △△입니다.’로 시작하고, 회의를 할 때도 ‘안전합시다.’로 시작한다는 포항제강소는 안전이 생활에 묻어나오는,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다.

이러한 생활 속 안전을 기반으로 철강업계 최초로 무재해 694일을 달성했다는 이곳은 안전지식과 함께 깔려있는 안전의식으로 현장 곳곳에 안전의 손길을 점점 뻗어나가고 있었다. 

<성호연 기자>

